

원효(元曉) 무애무(無碍舞)와 구야(空也) 오도리넨부츠(踊念佛)의 비교(比較) 일고(一考)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Wonhyo (元曉) Muaemu (無碍舞) and Guya (空也) Odorinenbutsu (踊念佛)

저자 (Authors)	명계환 Myung, Gye-Hwan
출처 (Source)	불교학보 93 , 2020.12, 109-131 (23 pages) BUL GYO HAK BO 93 , 2020.12, 109-131 (23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07087
APA Style	명계환 (2020). 원효(元曉) 무애무(無碍舞)와 구야(空也) 오도리넨부츠(踊念佛)의 비교(比較) 일고(一考). 불교학보, 93, 109-131.

삼성현역사문화정보
125.137.52.***
2021/02/07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효(元曉) 무애무(無碍舞)와 구야(空也) 오도리넨부츠(踊念佛)의 비교(比較) 일고(一考)

명계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강사

- I. 들어가며
- II. 경전의 관련성: 『화엄경(華嚴經)』과 『법화경(法華經)』
- III. 염불의 사상성: 일심정토(一心淨土)와 전수칭명(專修稱名)
- V. 나가며

<한글요약>

이 연구는 원효(元曉) 무애무(無碍舞)와 구야(空也) 오도리넨부츠(踊念佛)의 차이점에 관한 하나의 이해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무애무와 일본의 오도리넨부츠는 원효와 구야라는 승려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대중 교화를 위해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염불과 춤이 결합된 점,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도구가 호리병박으로 같다는 점에서 원효의 무애무가 일본 오도리넨부츠의 원류가 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양자는 염불에 관한 경전 관련성과 사상성에서 차이가 있다. 원효 염불의 경전 관련성은 『화엄경(華嚴經)』에 있다. 그는 분황사에서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찬술하던 중 「회향품(廻向品)」에 이르러 절필했다. 절필의 동기는 보살의 회향(廻向)에 있으며, 회향의 방법은 『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의 나무아미타불을 권칭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구야는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에게 지극정성으로 염불했다는 점, 『법화경(法華經)』을 설하며 순례한 점에서 구야 염불의 경전 관련성은 『법화경』에 있다. 또 원효 염불의 사상성은 자력과 타력 등 모든 수행문의 경계가 일심을 증득하여 一心淨土(일심정토)를 구현하는 데에 있지만, 구야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염불 자체로 정토 왕생한다는 專修稱名(전수칭명)과 선(禪)에 그 사상성이 있다.

주제어 : 원효(元曉) 무애무(無碍舞), 구야(空也) 오도리넨부츠(踊念佛),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 一心淨土(일심정토), 專修稱名(전수칭명)

I. 들어가며

해동의 성자 원효(元曉, 617-686)와 일본의 구야(空也, 903-972)는 한일 불교의 두 스승으로 대중 교화에 누구 보다 앞장섰으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기만 해도 서방정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신앙을 퍼뜨려 한일 양국에서 서민불교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게다가 대중 교화를 위해 춤과 호리병박이 같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형태를 염불춤이라고도 하는데 원효는 무애무(無碍舞), 구야는 오도리넨부츠(踊念佛)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구야는 헤이안(平安) 시대에 활동한 둔세승(遁世僧)¹⁾이며 민간 정도교의 시조이다. 당나라에서 염불삼매(念佛三昧)의 법을 들여와 전한 일본의 엔닌(圓仁, 794-864) 이후, 히에이잔(比叡山)의 개산조인 사이초(最澄, 767-822)가 상행삼매(常行三昧)²⁾를 창시했다면, 구야는 염불에 춤과 주술을 가미한 오도리넨부츠(踊念佛)라는 형태로 민중불교를 실천한 인물이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 정도 불교의 한 종파인 시종(時宗)³⁾의 개조인 잇펜(一遍, 1239-1289)의 교화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잇펜은 그 모범의 대상을 앞선 구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원효의 비교 대상으로는 주로 구야를 삼고 있다.⁴⁾

그간의 연구는 대개 원효와 구야의 염불춤에 관한 유사성에 관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라면 ‘무애희(無碍戲)의 원류를 더듬고, 한일 양국의 무애무와 구야의 염불에 관

- 1) 관승의 입장을 버리고 개인 구제를 가장 의미 있는 일로 삼는, 즉 ‘둔세’하는 일에 역점을 둔 스님. 마츠오겐지 지음·김호성 옮김,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p.78
- 2) “상행삼매는 90일 동안을 한정하여 행도(行道)하면서, 입으로 미타불의 명호를 외우고 마음에 미타불을 억념함으로써 견불(見佛)을 기대하는 행법이다. 특히 엔닌(圓仁)이 도입한 염불삼매는 곡조를 붙여서 『아미타경』을 풍송(諷誦)하는 ‘인성(引聲)의 아미타경’과 완만한 곡조에 의해 아미타 불명을 칭하는 ‘인성염불’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양쪽 모두 극락정토의 수조(水鳥)와 수림(樹林)의 염불 소리를 묘사한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처럼 미적 감각적인 음악적 환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실제로 엔닌 자신은 염불삼매에 피리를 반주용으로 사용할 정도였다. 염불삼매를 행하는 도량이 상행삼매당(常行三昧堂)이며, 내부 중앙 정면에는 황금색의 아미타불이 본존으로 안치되어 있고, 사방의 벽면에는 극락정토 광경이 그려져 있다.” 川崎庸之·笠原一男 지음, 계환 스님 옮김, 『일본불교사』(서울: 우리출판사, 2009), pp.135-136.
- 3) 흔히 정도종에서는 임종시(臨終時)에 열 번만 염불을 하더라도 왕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잇펜 스님은 임종시를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다. 매 순간순간이 임종시라고 생각하고 염불하라 한다. 지금 죽는 것과 같이 간절하게 염불하라는 의미이다. 김호성, 「잇펜(一遍)스님과 함께 춤을」, 『일본불교사 공부방』 Vol.6(서울: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2008), pp.68-69
- 4) 김호성, 「일본 정도불교와 관련해서 본 원효의 정도신앙 -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의 기사를 중심으로 -」, 『불교학보』 Vol.0, No.90(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20), pp.98-99.

련된 문헌과 민속을 살펴본 연구’,⁵⁾ ‘현재 연행되는 구아의 오도리넨부츠 계통의 불교 연회를 분석하여 원효 무애무의 연희 형태를 추론한 연구’,⁶⁾ ‘원효의 『무애가무(無碍歌舞)』는 고려에 있어 연행(演行)되었다. 이후 10세기에 일본으로 전해져 구아가 이를 계승·유행시켰는데, 이를 일컬어 용염불이라고 해석한 연구’,⁷⁾ ‘원효의 무애춤은 일본 정토시종 염불춤의 원류가 되었다는 것을 밝힌 연구’,⁸⁾ ‘현재 일본 도쿠시마(德島)와 인근 명문 등지에서는 호리병박(谷項葫蘆)을 차고 무아의 경지에서 아와오도리(阿波踊)⁹⁾를 추는데 이것을 무애무의 전래 된 형태로 파악했다. 그러한 근거로 그곳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귀화해 살았던 장소이며, 현재에도 한국 성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든 연구’¹⁰⁾ 등이 있다.¹¹⁾

이 밖에도 무애무와 오도리넨부츠를 비교하며, 이를 한일 예능사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파악한 연구,¹²⁾가 있으며, 최근에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원효불기(元曉不羈)」

- 5) 李杜鉉, 「無導戲와 空也念佛」,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Vol.6(경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1985).
- 6) 蔡漢淑·孫知慧, 「元曉의 無舞와 空也의 踊躍念佛의 關連性について-元曉無舞의 元型探しに對する一つの試論」, 『日本文化研究』 38(충남: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 7) 김사엽, 「원효대사와 미타정도교」, 『향가의 문학적 연구』 5-3(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 8) 현장, 『나를 보게 하소서: 현장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서울: 민족사, 1995).
- 9) 일본의 3대 오도리 무용으로 불리는 전통춤. 아와오도리(阿波踊)는 본래 도쿠시마현의 400년 전 전통축제에서 유래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전통축제이다. 경쾌한 장단과 독특한 무용이 어우러진 춤이다.
- 10) 장한기, 『증보 한국연극사』(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5).
- 11) 또 원효의 무애무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공연문화차원에서 무애춤이 작법무의 사상적 목적을 확실하게 했다는 견해를 밝힌 연구(심상현, 『공연문화연구』 12(한국공연문화학회, 2006))’/ ‘원효의 무애춤을 종합예술적인 면과 동작 명상치료의 역할을 겸한다고 하여 표현예술치료의 효시로써 연구 검토한 연구(김상백, 「원효무애춤/동작명상치료의 현재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Vol.3, No.2(충남: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2007))’/ ‘무애춤의 전승 배경을 다룬 연구(은정희, 『인물로 보는 한국의 불교사상』, 한국불교원전연구회(서울: 예문서원, 2004))’/ ‘무애춤을 진속일여(眞俗一如)의 경지에서 파악하여 불교의 민중화와 실천에 관한 연구(채희완, 『공동체의 춤, 신명의 춤』(서울: 한길사 1985))’ 등이 그것이다. 이상은 김상백, 위의 글, 「원효무애춤/동작명상치료의 현재적 연구」, pp.2-3을 참조.
- 12) 김난주는 “무애무와 오도리넨부츠의 傳承史를 비교 고찰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한일 불교 예능사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삼으려 했다. 그는 일본의 불교예능이 춤과 노래와 연극적 퍼포먼스를 동원하여 민중적 지반을 확장해 갈 때, 원효의 무애무를 표방한 불교예술이 귀족화 의례화의 길을 걸으며 민중과 유리되어 갔으며, 또한 조선 왕조의 몰락과 함께 그 전승 기반마저 상실하고 맥이 끊긴 현실은 한국 불교 예능사를 생각할 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김난주, 「舞舞와 오도리넨부츠(踊念佛)의 비교 연구-한일 염불춤의 道程과 그 특수성-」, 『동아시아

조에 나오는 원효의 삶을 정도 신앙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한 시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춤 염불의 경우, 헤이안 시대의 저자거리 성인인 구야와 가마쿠라 시대 잇페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며 민중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호응이 있었다는 것이며, 실제 원효도 민중들의 평가와 호응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¹³⁾

이상의 연구들은 한일 불교사의 신앙과 문화적 교류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그 연구가치가 크다 하겠다. 하지만 원효 무애무와 구야 오도리넨부츠의 직접적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 유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무애무가 오도리넨부츠의 원류라는 등의 다소 무리한 논리적 비약도 없지 않다.¹⁴⁾

이 연구는 원효 무애무와 구야 오도리넨부츠의 공통점 보다 양자의 차이점에 관한 하나의 이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염불의 경전 관련성과 사상성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원효의 무애무는 『화엄경(華嚴經)』과 일심정토(一心淨土), 구야의 오도리넨부츠는 『법화경(法華經)』과 전수칭명(專修稱名)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목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 방향이 구야의 오도리넨부츠가 원효의 무애무를 원류로 한다는 점에서 주로 공통점을 모색한 연구였다면, 이 연구는 각각의 염불춤이 다르다는 것에 관점을 둔 고찰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에 진행된 예가 없는 연구로서 학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

II. 경전의 관련성: 『화엄경(華嚴經)』과 『법화경(法華經)』

1. 『화엄경(華嚴經)』과의 관련성

먼저 원효 무애무의 염불에 관한 경전 관련성은 『화엄경(華嚴經)』에 있다는 점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원효의 무애무에 관한 당시의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三國遺事)』, 1260년경 성립된 『파한집(破閑集)』,¹⁵⁾ 그리고 15세기에

고대학』 Vol.41(서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6), pp.111-212.

- 13) 김호성, 앞의 글, 「일본 정토불교와 관련해서 본 원효의 정토신앙-『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의 기사를 중심으로-」.
- 14) 기존의 무애무와 오도리넨부츠의 비교 연구는 주로 유사함을 지적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서 본격적인 비교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무애무에 대한 사료가 너무도 빈약한 가운데 일본의 오도리넨부츠를 통해 원효 무애무의 실상을 유추해 보고자 한 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하겠다.
- 15) 고려 중기의 문신 이인로(李仁老)의 시화·잡록집으로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만들어진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에서 관련 기록의 편린(片鱗)이나마 접할 수 있다. 먼저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원효는 이미 계를 어겨 설총을 낳은 후에는 세속의 옷으로 바뀌 입고 스스로를 소성거사(小姓居士)라고 하였다. 우연히 광대들이 춤출 때 사용하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상하였다.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華嚴經)』의 한 구절인 “일체 무애인(無碍人,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은 한 번에 생사에서 벗어난다.”라는 구절에서 따서 무애(無碍)라 이름 짓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 무애를 가지고 수많은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시키고 읊조리며 다녔으니,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무지몽매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의 교화는 위대하다 할 것이다.¹⁶⁾

이어서 『파한집』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전에 원효대성(元曉大聖)이 천한 사람들 속에 섞이어 놀았다. 일찍이 목 굽은 호로박을 어루만지며 저자에서 춤추고 노래하니 이를 무애(無碍)라 하였다. 이런 일이 있던 뒤에 호사가 금방울을 위에 매달고 채색 비단을 밑에 드리워 장식하여 두드리며 진퇴(進退)하니 모두 음절에 맞았다. 이에 불경(佛經)에 있는 계송(偈頌)을 따서 무가(無歌)라 하니 발 가는 늙은이도 이를 모방하여 유희로 삼았다.”¹⁷⁾

『삼국유사』에서는 원효가 부른 노래를 ‘무애가’라 하고 『파한집』에서는 ‘무가’라고 했으

고전시학(古典詩學)의 귀중한 자료이다. 『파한집』의 권상은 시평(詩評) 12조(條), 서필담(書筆談) 1조, 수필 7조, 시화(詩話) 1조, 문담(文談) 2조, 기행문 1조, 권 중은 시평 13조, 수필 13조, 권하는 시평 15조, 수필 18조 등의 도합 83조가 수록되어 있다. 『파한집』은 우리나라 시화집의 효시라 할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341-343.

- 16) 一然, 『三國遺事』, 卷4 義解5, 元曉不羈 條(『韓佛書』6 348a). “曉既失戒生聰 已後易俗服 自號小姓居士 偶得優人舞弄大瓠 其狀瑰奇 因其形製爲道具 以華嚴經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 命名曰無碍 仍作歌流于世 嘗持此 千村萬落 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牖獲猴之輩 皆識佛陀之號 咸作南無之稱 曉之化大矣哉.”
- 17) 李仁老 著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譯, 『國譯 破閑集·慵齋叢話』(서울: 동아출판사, 1964), p.74. “昔元曉大聖 混迹屠沽中. 嘗撫玩曲項葫蘆 歌舞於市 名之曰無碍. 是後好事者 綴金鈴於上 垂彩帛於下 以爲飾 擊進退中音節. 乃摘取經論偈頌 號曰無歌 至於田翁亦效之以爲戲.”

며, 춤출 때 사용하던 도구가 각각 ‘큰 박(호리병박)’과 ‘목 굽은 호로박’이다. 또 『삼국유사』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무지몽매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며,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다고 했다. 『파한집』에서는 불경에 있는 계승을 따서 무가(無歌)라 하니 발 가는 늙은이도 이를 모방하여 유희로 삼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부처를 찬미하거나 부처의 명호를 반복하는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⁸⁾ 『삼국유사』나 『파한집』의 내용이나 의미는 거의 유사하다.

원효가 활동했던 통일기의 시기는 전쟁을 치르고 난 뒤 그 과정에서 애쓰거나 희생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까지 포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필요한 신앙으로서 미타신앙은 더없이 적절한 것이었다. 대안은 저잣거리에서 생활하면서 궁중의 초청도 외면하고 기층민과 어울려 지냈다. 원효는 이러한 흐름을 계승하여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는 염불을 일깨웠다.¹⁹⁾ 그렇다면 원효가 민중들의 삶 속으로 뛰어든 동기는 무엇일까. 『삼국유사』 「원효불기」 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는 일찍이 분황사(芬皇寺)에 머물면서 『화엄경소(華嚴經疏)』를 편찬하던 중, 제40 회향품(廻向品)에 이르러 마침내 붓을 놓았다. 또 일찍이 송사로 인하여 몸을 100그루 소나무에 나누었기 때문에, 모두 원효가 위계(位階)의 초지(初地)에 도달했다고 했다.²⁰⁾

통일신라시대로 접어들면서 화엄 사상에 관한 이해는 매우 창의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주로 원효와 의상에 의해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효의 저술 활동으로 화엄 사상은 빠르게 전파되었다.²¹⁾ 저술 활동에 몰두하던 원효는 분황사에서 『화엄경소』를 찬술

18) 원효 무애무의 실체를 논할 때 ‘무애가’는 중요한 존재의 근거가 된다. 이 외에 무애무의 형상에 대해 논할 때, 이두현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시중 광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바가지 춤에서 따온 것”이라고 추정했다. 李杜鉉, 앞의 글, 「無碍戲와 空也念佛」, pp.40-42. ; 윤광봉은 “흥에 겨워 북을 두드리고 어깨춤을 덩실거리며 신나게 한판을 이루는 소고춤이나 농악대 춤 같은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윤광봉, 「무애무」, 『한국의 演戲』, 서울: 반도출판사, 1992, pp.89-91. ; 김난주, 앞의 글, 「舞舞와 오도리넨부츠(踊念佛)의 비교 연구-한일 염불춤의 道程과 그 특수성-」, pp.220-221.

19) 정병삼, 『한국불교사』(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20), pp.192-195.

20) 一然, 앞의 책, 卷4 義解5, 元曉不羈條(『韓佛書』6, 348b). “曾住芬皇寺 纂華嚴疏 至第四十廻向品 終乃絕筆 又嘗因訟 分軀於百松 故皆謂位階初地矣

21) 원효의 화엄사상과 관련한 대표적 저술로는 『화엄경소(華嚴經疏)』 10권, 『화엄강목(華嚴綱目)』 1권, 『화엄경입법계품초(華嚴經入法界品抄)』 2권, 『화엄경종요(華嚴經宗要)』, 『보법기(普法記)』,

하다가 「십회향품(十廻向品)」에 이르러 절필(絶筆)하고 바로 중생교화의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갑자기 원효가 중생들의 삶 속으로 뛰어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회향(廻向)이라는 의미가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엄경』 보살도 체계에서 보살은 보살도의 완성을 위하여, 십주·십행·십회향·십지의 40위의 수행 차례를 거치게 된다. 이것을 여러 경전에서 원용(援用)하여 대승보살도 체계의 전형(典型)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십회향을 설정하는데 보살도 수행의 측면에서 회향은 수행의 필수 계위이자 불가분의 관계로 간주하고 있다.²²⁾

보살행은 남에게 공덕과 이익을 베풀어주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타행(利他行)을 목표로 삼는 구도자의 정신이며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이다. 대승(大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즉 ‘깨달음을 구하는 일과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동시에 병행한다.’ 이 두 가지는 조화롭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하지만 소위 대승이 대승다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제도하지 않더라도 남을 먼저 제도한다(自未得道 先度他)’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이론과 학문, 현학적 사건에만 흐르지 않고 항상 실천을 중시한다. 그 실천은 일체중생을 제도하고 사회전체를 정화하는 데 회향한다.²³⁾ 원효가 절필한 동기에는 『화엄경』 「십회향품」의 보살 회향 사상이 적잖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효는 그 이후 계를 어기고 요섭 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았고, 세속의 옷으로 바뀌어 입고 스스로를 소성거사(小姓居士)라고 했다. 또 『화엄경』의 한 구절인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은 한 번에 생사에서 벗어난다.”²⁴⁾라는 글을 인용해서 무애(無碍)라 이름 짓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이러한 원효의 교화로 모든 백성이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효가 중생들에게 나무아미타불로서 회향하려 했던 근거도 『화엄경』에 있지 않을까. 『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는 다

『일도장(一道章)』 1권, 『대승관행(大乘觀行)』 1권 등 7부 15권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가운데 『화엄경소』의 일부인 서분과 「광명각품소(光明覺品疏)」만 남아있다. 화엄교학과 관련된 논소로는 기신론 8부 14권도 주목된다. 이 밖에도 원효의 화엄가적 행적은 두루 나타나는 데, 해주 스님은 원효의 화엄경관에서 원효의 교관에서 화엄이 자리하는 위상과, 현존하는 『화엄경소』에 보이는 그의 사상, 그리고 원효의 기신론 등에서 원효사상은 화엄사상이라고 할 정도 화엄과의 인연이 깊다고 했다. 해주, 『화엄의 세계』(서울: 도서출판 민족사, 1998), pp.264-274.

22) 권탄준, 「『華嚴經』 「十廻向品」의 三種廻向」, 『보조사상』 Vol.27(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7), p.452 초록.

23) 박경준, 「대승불교사상과 사회참여 一考」, 『불교학연구』 Vol.24(서울: 불교학연구회, 2009), pp.119-120.

24) 『大方廣佛華嚴經』 卷5 「菩薩明難品第六」(『大正藏』9, p.429b17). “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

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원왕(願王)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아라. 마땅히 지성으로 받아 읽고, 읽고는 외우며, 외우고는 항상 지니고, 내지 베풀 써서 남을 위해 설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생각 동안에 모든 행과 원을 성취하며, 그 얻는 복(福)의 크기는 한량이 없고 가 없으며, 능히 대 번뇌 고해 중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며, 마침내 생사에서 벗어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往生)하게 되리라.”²⁵⁾

이처럼 원효가 붓을 꺾으면서 자신이 쌓은 공덕과 재지를 중생들에게 회향할 필요를 절감했을 때,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은 중생구제를 위한 더할 나위 없는 방편이었을 것이다. 원효는 나무아미타불을 통해 백성의 삶 속으로 뛰어 들며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호성 교수는 『화엄경』과 염불 관련성의 논리를 일본의 신란(親鸞, 1173-1263)의 제자 유이엔(唯円, 1222~1289)이 기록한 『탄이초(歎異抄)』²⁶⁾ 제7조에 있는 내용을 통해 밝힌 적이 있다.

“염불이라는 것은 무애(無碍)의 한 길(一道)이다. 그 이유는 어째서인가? 신심이 있는 행자에게는 천신(天神)이나 지기(地祇)라도 경복(敬伏)하고, 마계(魔界)나 외도(外道)라도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악도 업보도 느낄 수 없고, 모든 선행(의 과보)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⁷⁾

그는 위와 같은 신란의 말을 통해 『화엄경』의 무애가 염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효의 무애가 정토신앙의 맥락에서도 쓰일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이 밖에도 신란의 『교행신증(教行信證)』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화엄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25) 『大方廣佛華嚴經』卷40「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大正藏』10, p.846a29). “是故汝等聞此願王, 莫生疑念, 應當諦受, 受已能讀, 讀已能誦, 誦已能持, 乃至書寫, 廣為人說. 是諸人等於一念中, 所有行願皆得成就, 所獲福聚無量無邊. 能於煩惱大苦海中拔濟眾生, 令其出離, 皆得往生阿彌陀佛極樂世界.”

26) 신란의 가르침과 평소의 언행을 기록한 책.

27) 『歎異抄』(『大正藏』83, pp.729b18-23). “念仏者は無碍の一道なり そのいわれいかんとならば, 信心の行者には, 天神・地祇も敬伏し, 魔界・外道も障碍することなし 罪惡も業報を感ずることあたわず, 諸善もおよぶことなきゆえなりと云云.” 김호성, 앞의 글, 「일본 정토불교와 관련해 본 원효의 정토신앙-『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의 기사를 중심으로-」, p.95에서 재인용.

“길이라는 것은 걸림 없는 길이다. 『경』에서는 ‘온 누리의 걸림 없는 사람이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의 걸림 없는 길이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이른바 생사가 곧 열반임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평등하게 불이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 걸림 없음의 모습이다.”²⁸⁾

즉 『화엄경』의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를 신란은 “시방무애인(十方無碍人),²⁹⁾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탄이초』에서 말한 ‘무애의 일도’를 『교행신증』에서는 ‘일도가 곧 무애’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탄이초』에서 말하는 염불, ‘무애의 일도’라는 것은 그 사상적 배경을 『화엄경』으로 하는 것이며, 신란은 그것에 의지하여 말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³⁰⁾ 곧 원효가 인용했던 것처럼 신란도 『화엄경』 구절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효 무애무의 염불에 관한 경전 관련성은 『화엄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법화경(法華經)』과의 관련성

다음은 구야 오도리넨부츠의 염불에 관한 경전 관련성은 『법화경』에 있다는 점에 관해서 보겠다. 구야는 자신의 경력이나 사상에 대한 글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애에 관한 자료는 명확성이 떨어진다. 구야가 다이고(醍醐) 천황, 혹은 닌메이(仁明) 천황의 황자인 죠코 친왕의 아들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구야는 903(延喜 3)년에 태어나 5기(畿) 7도(道)³¹⁾을 돌아다니며 명산영굴(名山靈窟)을 방문했을 무렵, 도로가 부실한 곳이 있으면

28) 『顯淨土眞實教行證文類』(『大正藏』83, p.598a). “道者, 無導道也. 『經』言, ‘十方無碍人, 一道出生死.’ 一道者, 一無導道也. 無導者, 謂知生死即涅槃. 如是, 等入不二法門, 無導相也.” 김호성, 위의 글, 「일본 정토불교와 관련해서 본 원효의 정토신앙」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의 기사를 중심으로 -, p.96에서 재인용.

29) 신란은 같은 『교행신증』 제2권에서는 ‘일체(一切)’를 ‘시방(十方)’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다.

30) 김호성, 위의 글, 「일본 정토불교와 관련해서 본 원효의 정토신앙」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의 기사를 중심으로 -, pp.95-96.

31) 울령 제도하의 지방행정구획으로, 5畿란 왕도를 중심으로 5개의 國을 가리킨다(大和, 山背, 攝津, 河內, 和泉). 7도는 전국을 7개의 구역으로 나눈다(西海道, 南海道, 山陽道, 山陰道, 東海道, 東山道, 北陸道). 본래는 각도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부근 일대 지역을 가리키고 나아가, 일본 전국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마츠오 겐지 지음·김호성 옮김, 앞의 책,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사』, p.76.

사람과 말의 고통을 헤아려서 수리해 주었으며, 또 다리를 놓아 주는 등의 이타행을 했다. 섬이 마른 곳에는 우물을 파주기도 했는데, 그 우물들을 아미타정(阿彌陀井)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들판에 버려진 유해를 찾아내 한 곳에 기름을 붓고 태우며 아미타불을 염불하며 회향했다고 한다.

20세 무렵에는 오와리 구니(尾張國) 고쿠분지(國分寺)로 출가했는데, 이때 구야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후 하리마현(兵郡縣)의 이보군(捐保郡) 미네아이지(峰相寺)에서 『일체경(一切經)』³²⁾을 수학했으며 도쿠시마(德島縣)와 코치켄(高知縣)의 경계에 있는 유시마(湯島)라는 곳에서 단식했으며, 관세음보살 앞에서 팔뚝에 연비하고 7일간 움직이지도 잠자지도 않으면서 관음을 만나려고 고수연행(苦修練行) 등을 행했다고 한다. 또 도후쿠(東北) 지방에서 불상과 경론을 짚어지고 법라(法螺)를 불면서 『법화경』을 설하며 순례했다고 한다.

938(天慶元)년 경부터는 교토(京都)에 들어가 거의 시정에 숨어 걸식하고, 보시가 들어 오면 불사를 하며 빈민이나 병자에게 베풀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치히지리(市聖), 곧 ‘거리의 성자’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또 평소 언제나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칭하였기 때문에 아미타히지리(阿彌陀聖)로도 불렸다.³³⁾ 또 히에이잔(比叡山)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소위 산(속)의 염불³⁴⁾과는 달리, 일반 서민 속에서 생활하며 염불의 전파를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의 민중들에게 친숙해지기 쉬운 염불형식을 창출해냄으로써 가능했다고 한다.

구야는 포교할 때 춤을 추면서 염불했는데, 이것을 유아쿠넨염불(踊躍念佛) 혹은 오도리넨부츠(踊念佛)라고 한다. 염불에 가락을 붙여 징이나 호리병박을 두드리며 추던 춤염불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효의 무애무와의 관련성이 언급되는 것이다.³⁵⁾ 춤염불은 구야가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구야넨부츠(空也念佛)라고도 한다. 이후에는 잇펜의 시종(時宗)에 의해 널리 퍼졌다. 춤염불은 기아나 질병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어려운 교학이나 이론이 아닌 염불을 통해 불법을 전하기 위한 포교방법이었다.³⁶⁾

32) 일체의 불교성전(佛敎聖典)의 총칭. 경율논과 그 주해서(註解書) 등을 포함한다. 석존이 일대(一代)에 설한 바를 섭장(攝藏)하는 의미로 일대장경(一代藏經)이라고 하고, 또 대장경(大藏經)·장경(藏經)이라고도 한다. 金正佶, 『佛敎學大辭典』(서울: 弘法院, 1988), p.1236.

33) 마츠오 겐지 지음·김호성 옮김, 앞의 책,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사』, pp.76-77.

34) 앞서 밝힌 ‘상행삼매’ 염불을 말한다. 각주 3)을 참조.

35) 특히 호리병박이 사용됨을 주목할 수 있는데, 오도리넨부츠는 호리병박이 경쇠나 북, 鉦(정) 같은 악기와 함께 박자를 맞추는 악기로 사용되었으며(목에 금고(金鼓)를 치며 “아미타불 요야오이오이”라고 했다고한다), 무애무는 “호리병박에 금방울을 매달고 채색 비단을 드리워 장식하고 두드리면 진퇴(進退)하니 모두 음절에 맞았다고 한다.”라고 『파한집(破閑集)』에 기록되어 있다. 김난주, 앞의 글, 「舞舞와 오도리넨부쓰(踊念佛)의 비교 연구 -한일 염불춤의 道程과 그 특수성-」, p.215.

구야가 입멸한 후 사이코지(西光寺)는 로쿠하라미쓰지(六波羅蜜寺)로 고치고 그곳 공화회(供花會)에서 낮에는 『법화경』을 강설하고 밤에는 염불삼매를 수행했는데, 결연하는 자가 몇만 명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성황이었다. 구야와 로쿠하라미쓰지 염불의 중심역할을 했던 것은 구야의 염불은 산(속)의 염불(상행삼매당)처럼 화려한 장엄을 하지 않았으며, 때와 장소, 남녀노소, 승속을 묻지 않고 오로지 염불하는 것만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타의 상호나 극락정도의 관상(觀想)은 구야 염불의 조건이 아니었다. 이러한 구야의 노력에 의해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서민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다.³⁷⁾

야스다네(慶滋保胤, ? - 997)의 『일본왕생극락기(日本往生極樂記)』 중에는 구야를 칭찬하기를, “덴교(天慶)이후 도량과 취락에서 염불삼매를 닦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데 허물며 소인(小人)·우녀(愚女) 등의 사람들이 좋아하겠는가. 상인(上人)이 내려온 후 스스로 부르거나 남이 부르게 하니 그 후 세상에는 모두 염불을 일로 삼았다. 진실로 이것은 스님이 중생을 교화한 힘이다.”라고 한 것과 같이 염불 보급은 구야의 공로가 컸다.³⁸⁾ 이처럼 민중 포교를 위해 염불과 춤을 결합했고 사용된 도구가 호리병박,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기만 해도 서방정도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으로 서민불교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원효와 같다. 하지만 원효 염불의 동기가 『화엄경』에 있었다는 것과 달리 구야 염불은 『법화경』과 관련성이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구야는 언제나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고 다녔다는 것 이외에도 도쿠시마(德島縣)와 코치켄(高知縣)의 경계에 있는 유시마(湯島)에서 단식하며, 관세음보살 앞에서 팔뚝에 연비하고, 7일간 움직이지도 잠자지도 않으면서 관음을 만나려고 고수연행(苦修練行) 등을 행했다. 또 도후쿠(東北) 지방에서는 불상과 경론을 꿰어지고 법라를 불면서 『법화경』을 설하며 순례했으며, 또 구야가 입멸한 후 로쿠하라미쓰지 공화회에서 낮에는 『법화경』을 강설했으며, 밤에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삼매를 수행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고 곧 해탈하게 하느니라.”³⁹⁾

36) 조종욱, 「엔이, ‘잇펜쇼닌에덴’ “정토왕생은 나무아미타불 명호 염불하는 순간 이뤄진다”, 『법보신문』 1322호(2015.12.9), 검색일: 2020년 10월 10일, 17시 4분.

37) 川崎庸之·笠原一男 지음, 계환 스님 옮김, 앞의 책, pp.138-139.

38) 石田瑞麿 著, 李永子 譯, 『日本佛教史』(서울: 민족사, 1988), p.143.

39) 『妙法蓮華經』 卷7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大正藏』9, p.56c05). “善男子, 若有無量百千萬億衆生 受諸苦惱 聞是觀世音菩薩 一心稱名 觀世音菩薩 即時 觀其音聲 皆得解脫

이처럼 구야가 지극정성으로 7일 밤낮으로 염불했던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을 숭배하는 정토교(淨土敎)에서는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과 함께 아미타불의 협시보살(脇侍菩薩)로 설정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죽은 이들을 서방정토(西方淨土)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신앙은 3~5세기 무렵에 한역된 정토계 경전들에 근거하고 있는데, 중국의 관음상과 관음 신앙은 훗날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음 신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전래된 관음 신앙이 6세기 무렵에는 백제와 신라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백제에서는 독존적(獨尊的)인 관음 신앙이 유포되었으나, 말기에는 관음상이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서 조성된 예도 있다. 통일신라 초기의 관음 신앙은 독존적인 관음 신앙으로서 주로 현실적인 이익을 위한 현세적인 성격을 띠지만, 관세음보살이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돕는다고도 보아 정토 신앙과 연결된 예도 있다.⁴⁰⁾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 전해진 관음 신앙은 특정한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 전역에 두루 퍼져나갔다.⁴¹⁾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구야 오도리넨부츠의 염불에 관한 경전 관련성은 『법화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염불의 사상성: 일심정토(一心淨土)와 전수칭명(專修稱名)

1. 일심정토(一心淨土)

먼저 원효 무애무의 염불에 관한 사상성은 일심정토(一心淨土)를 구현하는 데 있다는 점에 관해서 보겠다. 원효 사상의 근본 원리 자리는 일심(一心)이다. 원효는 『대승기신론(大乘

40) 一然, 앞의 책, 卷5 感通7, 廣德嚴莊 條(『韓佛書』6, 358b-359a)에는 문무왕 대에 생업을 갖고 수행하던 광덕과 엄장이 있었다. 광덕이 입적하고 엄장이 그 아내와 통정하려고 하니 광덕의 처(관음보살)는 원효에게 수행하게 한다. 엄장은 원효법사에게 도 닦는 비결을 간절히 구하며 결국 극락왕생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1) 일본 측 사료에도 595년 백제의 공장(工匠)을 시켜 관음상을 조각하였다는 기록과 백제 사문 일라(日羅)가 583년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쇼토쿠(聖德)태자와 관세음보살에 관해서 문답하였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 또한, 일본 백제사의 본존이 관음상인 것도 백제에 관음신앙이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앞의 책,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p.96.; 김영태(金煥泰) 교수는 “백제의 임성태자(琳聖太子)는 분명히 일본에 관음신앙을 전한 장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임성태자가 성덕태자(聖德太子)에게 관음신앙을 전해 일본의 관음신앙의 특수한 전개를 있게 한 최초의 전수자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金煥泰, 『百濟佛敎思想研究』(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 p.234.

起信論』의 일심 사상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대승의 법은 오직 일심이 있을 뿐이며 일심 이외에 다른 법은 없다. 단지 무명이 일심을 미혹시켜 육도에 유전하게 하지만 이때에도 역시 일심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⁴²⁾

원효의 사상과 삶을 일관하는 핵심원리가 일심에서 나오고 있음은 모든 원효 사상 연구에서 공이 지적되고 있다.⁴³⁾ 원효에게 일심이란 진여와 번뇌의 원천에 자리하고 있는 한마음으로서 누구나 지닌 마음임을 일깨워 주었다. 원효가 지은 103종 202(208)내지 208(214)권의 정도 관련 저술은 13종에 이른다. 책은 저자와 분리해서 이해하기 어렵듯이 원효의 염불관(念佛觀)에도 그의 사상이 담겨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에 관련한 주석서를 남겼는데, 원본으로는 『불설아미타경소(佛說阿彌陀經疏)』, 미 원본으로는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와 『미타증성계(彌陀證性偈)』가 있다.

정토문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행을 하면 아미타불의 본원력(本願力)에 의해 정토에 왕생한다는 가르침이지만, 이들 주석서에서 말하는 원효의 정토관 내지 염불관은 한마디로 일심의 증득을 통한 정도의 구현이다. 『불설관무량수경(佛說觀無量壽經)』에도 일심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희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관하였다면 다음에는 부처님을 상상하여라. 왜냐하면 모든 불여래(佛如來)께서는 바로 법계신(法界身)이므로 일체중생의 마음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상상할 때 그 마음이 곧 32상(相)과 80종호(種好)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부처가 되므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는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한마음으로 생각을 집중하여 저 부처님·여래(如來)·응공(應供)·정변지(正遍知)를 관해야 하느니라.⁴⁴⁾

이처럼 정토는 종교적 신앙으로 염원하고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해 성취하는 깨달음의 세계이면서도,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님 지혜의 바다는 마음이므로 한마음으로 집중

42) 元曉, 『大乘起信論疏記會本』(『韓佛書』1 736c). “明大乘法唯 有一心。一心之外更無別法 但有無明迷自一心。起諸波浪流轉六道。雖起六道之浪。不出一心之海。”

43) 박태원, 「원효와 의상의 통합 사상」, 『철학논총』 28집 2권(경북: 새한철학회, 2002), pp.6-7.

44) 『觀無量壽經』(『大正藏』12, p.343a). “佛告阿難及韋提希 見此事已 次當想佛 所以者何 諸佛如來是法界身 入一切衆生 心想中 是告汝等 是心即是 三十二相 八十隨形好 是心作佛 是心是佛 諸佛正遍知海 從心想生 是故應當 一心繫念 諦觀彼佛。”

해서 여래를 관하라고 하는 것이다.

『무량수경종요』에서는 “깨달음의 경계로 말하면, 이곳[불토(佛土)]도 없고 저곳[예토(穢土)]도 없으며, 불보살의 정토(淨土)가 본래 한 마음일 따름이니 생사와 열반이 마침내 이제(二際)가 아니다.”⁴⁵⁾라고 했다. 즉 원효의 정토사상 기반은 예토와 정토, 생사와 열반, 그리고 차안과 피안이 둘이 아니며 모두가 일심으로 들어가는 세계관이다.⁴⁶⁾ 다시 말해 자력과 타력의 모든 수행문의 경계가 일심을 증득하는 것이다. 원효는 일심의 증득으로 서방정토(西方淨土)가 아닌 차방정토(此方淨土), 타심정토(他心淨土)가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원효는 마음이 겁이 많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승방편(勝方便)으로써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여래의 원행으로 성취된 정토와 중생의 자력으로 성취된 정토를 대비시키려고도 했다. 『인왕경(仁王經)』, 『섭대승론(攝大乘論)』, 『유가론(瑜伽論)』, 『무량수경(無量壽經)』을 인용하여 네 가지 정토를 각각 금강지(金剛地), 팔지(八地), 환희지(歡喜地), 정정취(正定聚)의 단계로 구분하여, “이 네 문의 정토는 원행으로 성취된 곳이며 저곳에 태어난 중생의 자력으로 성취된 곳이 아니다. 예토의 바깥 기 세계가 중생의 공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⁴⁷⁾라고 했다. 이를 풀이하면 정토와 예토가 하나라고 한 것은 근기가 높은 이를 위한 설이고, 정토가 서방에 있다고 한 것은 근기가 낮은 이를 위한 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전자가 유심정토설 혹은 차방정토설이 되며, 후자는 서방정토설 혹은 타방정토설이 된다고 볼 수 있다.⁴⁸⁾

이처럼 원효는 일심정토(一心淨土)를 구현하는 데 있어 오직 일심을 주장했으며, 또 근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설하기도 했다. 약한 근기는 일심으로 칭명(稱名)하면 본원력에 의한 결정성의 믿음을 성취하고 편안함을 얻어 악을 버리고 선을 실천하게 했으며, 예리한 근기는 관상(觀相)으로 깨달음을 성취케 하는 염불선(念佛禪), 즉 부처님의 경계를 관찰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고 대승 보살도를 실천하여 큰 도로 나아가게 했다. 원효는 중생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토의 문(門)들을 시설했지만, 궁극에는 모두 일심의 대해로 나아가게 했다. 따라서 원효 무애무의 염불에 관한 사상은 자력과 타력의 모든 수행문의 경계가 일심을 증득하여 일심정토를 구현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5) 元曉, 『無量壽經宗要』(『韓佛書』1, p.553c). “穢土淨國。本來一心。生死涅槃。終無二際。”

46) 후지요시나리(藤能成), 『원효의 정토사상 연구』(서울: 민족사, 2001), p.352.

47) 元曉, 앞의 책(『韓佛書』1, p.555a). “上來四門。所說淨土。皆是如來願行所成。非生彼者自力所作。不如穢土外器世界。唯由衆生共業所成。是故通名清淨土也。”

48) 고영섭,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서울: 운주사, 2016), pp.314-325를 참고.

2. 전수칭명(專修稱名)

다음은 구야 오도리넨부츠의 염불에 관한 사상성은 전수칭명(專修稱名)에 있다는 점에 관해서 보겠다. 일본 정토종의 개조는 호넨이다. 일본은 종파불교이므로 정토 신앙에 종파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 정토진종은 신란이 열었으며, 시종(時宗)은 잇펜의 가르침을 뜻한다. 그런데 잇펜의 사상적 원류가 구야이므로 잇펜을 보면 구야의 사상도 가늠할 수 있다. 구야가 보여준 삶의 모습, 즉 히지리(聖)의 길을 카마쿠라 시대에 그대로 따라한 분이 잇펜이기 때문이다.⁴⁹⁾

일본 정토종의 세분 조사를 비교하자면 잇펜의 사상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 호넨(정토종)은 염불이야말로 절대적 존재인 아미타불에 의해 선택된, 극락에 왕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므로 염불만을 오롯이 닦아야 한다고 하여 전수염불(專修念佛)의 입장을 취한다. 호넨의 제자였던 신란(정토진종)은 이러한 믿음에서 역설적인 악인정기설(惡人正機說)을 펼치는데, 악인이야말로 자력으로 깨달을 수 없으므로 아미타불의 구제의 주된 대상이고 한다. 여하튼 호넨과 신란이 믿음을 중시한 데 비해, 잇펜은 아미타불의 절대성을 인정하여 믿음조차도 불필요하며 염불만으로 좋다고 주장했다.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저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염불하는 순간 정토 왕생할 수 있다고 했다.⁵⁰⁾

이에 대해 좀 더 부연한다면, 호넨은 생전에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임종 시에 아미타부처님이 왕생자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했다. 훗날 수많은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가 제작이 된 것도 이러한 사상에 기인한다. 반면 신란은 아미타내영으로는 부족하며, 악인을 비롯해 중생들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왕생이 이루어지므로 아미타불이 구태여 내영(來迎)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잇펜은 내영, 불내영(不來迎)이니 하는 논리마저도 초월한다. 그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명호를 염하는 순간 왕생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나무아미타불 명호 자체가 왕생이기 때문이다. 신란이 믿음을 중시한 데 반해 잇펜은 믿음이 없어도 염불만으로도 왕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미타불 본원의 믿음이나 불신도 상관없이 그저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염불하는 순간 정토왕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써 호넨과 신란에서 시작된 정토왕생 사상이 잇펜에 와서 정점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⁵¹⁾

49) 김호성, 앞의 글, 「일본 정토불교와 관련해서 본 원효의 정토신앙-『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의 기사를 중심으로 -」, p.100.

50) 마츠오겐지 지음, 김호성 옮김, 앞의 책,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사』, pp.83-95.

51) 조종욱, 앞의 글, 「엔이, ‘잇펜쇼닌에덴’ “정토왕생은 ‘나무아미타불’ 명호 염불하는 순간 이뤄진다」, 『법보신문』.

『관무량수경』에서는 정도에 왕생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마음을 지성심(至誠心), 심심(深心), 회향발원심(廻向發願心)이라고 했지만, 잇펜은 명호를 외고 염불만 하면, 삼심(三心)은 모두 저절로 갖추어진다고 간단히 말하는 것이다. 잇펜이 따랐던 구야의 염불도 상행삼매당의 화려한 장엄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때와 장소, 남녀노소나 승속을 묻지 않고, 다만 염불하는 것만을 필요로 했다. 잇펜의 염불과 함께 구야의 염불을 종합한다면, 구야의 염불은 선(禪)에 가깝다. 선은 한가지 대상에 집중해 들어가 삼매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때는 외부의 어떠한 소리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대상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 이를 통해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번뇌가 없음을 깨닫고 궁극 해탈에 이르게 된다.⁵²⁾ 중생은 전수칭명(專修稱名)만으로 일심불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분명하여, 곧 마음이 물과 같게 될 것이고,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담보하는 것이다.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외고 부르면, 중생은 잡념 혹은 잡되고 더러운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고 정념이 현전하게 된다. 바로 염불을 여인 밖에 선이 없고, 선을 여인 밖에 염불은 없는 것이다. 자력적인 선이나 타력의 아미타불 본원력의 구분은 분별이다. 염불 자체가 바로 자력이 내포된 타력이다. 단순히 칭명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 실제로 선 수행자가 갖추고 닦아야 할 지관(止觀)이 내포되어 있다. 염불에 전념하면 분별하는 생각이 없어 지(止)가 되고, 염불할 때 밝고 밝아 분명하면 관(觀)으로 지관을 구축하게 된다.⁵³⁾ 이처럼 구야 오도리넨부츠의 염불에 관한 사상성은 전수칭명과 선이라고 할 수 있다.

V. 나가며

이 연구는 원효 무애무와 구야 오도리넨부츠 양자 간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관한 하나

52) 산스크리트 문법 지식을 동원해서 살펴보면,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된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 말이 책 속에서 잠잘 때의 뜻일 뿐이다. 내가 나무아미타불이라 일컫는 순간 그 의미는 무궁무진하게 된다. 문법은 무용해지고 만다. “나무아미타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임종 직전 자신의 저서는 다 불태워버린 잇펜(一遍, 1239-1289. 일본의 정토신앙 종파인 時宗의 개조)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실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호(名號) 속으로 들어가서 명호와 하나가 되고 명호 속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다시 팔만대장경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천칠백 공안이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인가. 불법승 삼보와 팔만사천 법문이 이 나무아미타불 한 소리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말이다. 김호성, 「아나기무네요시의 나무아미타불」, 1. 해제 <상> 『법보신문』 1080호(2011.1.12), 검색일: 2020년 10월 21일, 14시 54분.

53) 법상, 『정토수생관 연구』(서울: 도서출판 운주사, 2013), pp.345-347.

의 이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한국의 무애무와 일본의 오도리넨부츠는 원효와 구야라는 승려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민중 포교를 위해 염불과 춤이 결합된 점,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도구가 호리병박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원효의 무애무가 일본 오도리넨부츠의 원류가 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증명할 확실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원효와 구야가 활동했던 7세기와 10세기는 양국 불교가 귀족불교에서 민중불교로 넘어가던 전환기였는데, 이러한 전환기에 한일 불교의 위대한 두 스승은 대중 교화에 앞장섰다는 것이며, 이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기만 해도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은 한일 양국에서 서민불교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뿐이다. 그렇지만 원효의 무애무와 구야의 오도리넨부츠는 다른 면들이 있다. 그 차이점이라면 염불의 경전 관련성과 사상성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무애무는 『화엄경』과 일심정토, 오도리넨부츠는 『법화경』과 전수칭명, 그리고 선의 양상을 띠고 있다.

원효 염불의 경전에 관한 관련성은 『화엄경』에 있다. 그는 분황사에서 『화엄경소』를 찬술하던 중 「회향품」에 이르러 절필했다. 절필의 동기는 보살의 회향에 있으며, 회향의 방법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나무아미타불을 권청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구야는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에 대한 지극정성으로 염불했으며, 『법화경』을 설하며 순례한 점에서 구야 염불에 관한 경전 관련성은 『법화경』에 있다. 또 원효 염불의 사상성은 자력과 타력의 모든 수행문의 경계가 일심을 증득하여 일심정토를 구현하는 데에 있지만, 구야는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염불 자체로 정토 왕생한다는 전수칭명과 선에 그 사상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간의 연구가 원효의 무애무와 구야의 오도리넨부츠 양자 간의 유사함을 지적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반해, 이 연구는 그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명확한 사료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여전히 많다. 이 연구를 보다 번듯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원효와 구야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풍토는 물론 그들의 불교계의 위치나 활동 배경 등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아울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의 약호 표기

『韓國佛教全書』: HD

『大正新修大藏經』: T

1. 원전자료

『觀無量壽經』(T12).

『教行信證』(T83)

『大方廣佛華嚴經』(T10).

『大方廣佛華嚴經』(T9).

『妙法蓮華經』(T9).

元曉, 『大乘起信論疏記會本』(HD1).

_____, 『無量壽經宗要』(HD1).

一然, 『三國遺事』(HD6).

『歎異抄』(T83)

2. 2차자료

[단행본]

고영섭,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서울: 운주사, 2016.

김사엽, 『원효대사와 미타정토교』, 『향가의 문학적 연구』 5-3,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

金煥泰, 『百濟佛教思想研究』,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

金正佶, 『佛敎學大辭典』, 서울: 弘法院, 1998.

渡邊照宏 著, 李永子 譯, 『日本佛敎』, 서울: 經書院, 1987.

마츠오겐지 지음, 김호성 옮김,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5.

- 법 상, 『정토수행관 연구』, 서울: 도서출판 운주사, 2013.
- 石田瑞麿 著, 李永子 譯, 『日本佛教史』, 서울: 민족사, 1988.
- 윤광봉, 「무애무」, 『한국의 演戲』, 반도출판사, 1992.
- 장한기, 『증보 한국연극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5.
- 川崎庸之·笠原一男 지음·계환스님 옮김, 『일본불교사』, 서울: 우리출판사, 200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해 주, 『화엄의 세계』, 서울: 도서출판 민족사, 1998.
- 후지요시나리(藤能成), 『원효의 정토사상 연구』, 서울: 민족사, 2001.

[논문류]

- 권단준, 「『華嚴經』 「十廻向品」의 三種廻向」 Vol.27, 『보조사상』,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7, pp.451-486.
- 김난주, 「舞舞와 오도리넨부쓰(踊念佛)의 비교 연구 - 한일 염불춤의 道程과 그 특수 성-」, 『동아시아고대학』 Vol.41, 서울: 동아시아고대학회, 2016, pp. 211-238.
- 김상백, 「원효무애춤/동작명상치료의 현재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Vol.3, No.2, 충남: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2007, pp.1-26.
- 김호성, 「잇펜(一遍)스님과 함께 춤을」, 『일본불교사 공부방』 Vol.6, 서울: 동국대학교인도철학과, 2008, pp.55-73.
- _____, 「일본 정토불교와 관련해서 본 원효의 정토신앙 - 『삼국유사』 원효불기(元曉不羈)의 기사를 중심으로 -」, 『불교학보』, Vol.0, No.90,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20, pp.85-107.
- 박경준, 「대승불교사상과 사회참여 一考」, 『불교학연구』 Vol.24, 불교학연구회, 2009, pp.107-146.
- 박태원, 「원효와 의상의 통합 사상」, 『철학논총』 28집 2권, 경북: 새한철학회, 2002, pp.3-30.
- 李杜鉉, 「無尋戲와 空也念佛」,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Vol.6, 경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85, pp.39-50.
- 蔡漢淑·孫知慧, 「元曉의 無舞와 空也의 踊躍念佛의 關連性について-元曉無舞의 元 型探しに對する一つの試論」, 『日本文化研究』38, 충남: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pp.505-524.

[정기간행물류]

- 김호성, 「아나기무네요시의 나무아미타불」 1. 해제, 상, 『법보신문』, 1,080호, 2011.

조종욱, 「엔이, ‘잇펜쇼닌에덴’ “정토왕생은 나무아미타불 명호 염불하는 순간 이뤄진다», 「법보신문」, 1,322호,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Wonhyo (元曉) Muaemu (無碍舞) and Guya (空也) Odorinenbutsu (踊念佛)

Myung, Gye-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Wonhyo (元曉)'s Muaemu (無碍舞) and Guya (空也)'s Odorinenbutsu (踊念佛). Korean Muaemu and Japanese Odorinenbutsu were designed by Ven. Wonhyo and Guya respectively. And it has been suggested that Wonhyo's Muaemu became the origin of Japanese Odorinenbutsu because both dances were combined with namo amitayur buddhaya (南無阿彌陀佛), chanting for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t edification. In addition to that the tool used in Muaemu and Odorinenbutsu were identical with a bottle gourd.

However, both hav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related scripture and thought of chanting (念佛). The relevance of Wonhyo's chanting scriptures lies in *Avatamsaka-sutra* (華嚴經). While editing *Hwaeomgyeongso* (華嚴經疏) in Bunhwang-sa Temple, Wonhyo gave up writing "the dedications of merit chapter" (廻向品). The motive for the giving up of his writing is the offering merit (廻向) way of the Bodhisattva, and the method of offering merit is the entreaty of namo amitayur buddhaya of "the Chapter on the Vows of Samantabhadra (普賢行願品), *Avatamsaka-sutra*.

On the other hand, Ven. Guya prayed with the utmost sincerity for the *Avalokitêśvara* (觀世音菩薩), an assistant bodhisattva to the main Buddha. The relevance of Ven. Guya's chanting scriptures lies in the *Saddharmapun darika-sutra* (法華經) as he preached the *Saddharmapundarika-sutra* in pilgrimage.

The ideology of Wonhyo's thought of chanting was to realize the One Mind Pure Land (一心淨土) as a means of gaining the wisdom, surpassing the boundary between self-power and other powers (自力他力) with One Mind (一心). However, Ven. Guya specially emphasized 'rebirth in the Pure Land (淨土往生)' through namo amitayur buddhaya thought of chanting by specially invoking the name of Amitâbha Buddha and meditating on him (專修稱名).

• **Keywords**

Wonhyo(元曉)'s Muaemu (無碍舞), Guya(空也)'s Odorinenbutsu (踊念佛), namo amitayur buddhaya (南無阿彌陀佛), *Avatamsaka-sutra* (華嚴經), *Saddharmapundarika-sutra* (法華經), One Mind Pure Land (一心淨土), special invoking the name of Amitâbha Buddha (專修稱名)

논문접수일: 2020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9일.